

아이섀도 색상과 립스틱 색상 및 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Combination of Eyeshadow Color, Lipstick Color and Lipstick Tone on Impression Formation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강 사 정 수 진

교 수 강 경 자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Jeong, Su Jin

Professor : Kang, Kyung Ja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결과 및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yeshadow color (brown, purple, and blue), lipstick color (red, red purple, and yellow red), and lipstick tone (vivid, light, dull, and dark) on impression formation. Sets of stimulus and response scales (7 point semantic) were used as experimental materials. The stimuli were 36 color pictures manipulated with the combination of eyeshadow color, lipstick color, and lipstick tone using computer simulation. The subjects were 216 female undergraduates living in Jinju city.

Impression factor of the stimulus was composed of 4 different components, attractiveness and gracefulness, visibility, cuteness, and softness, of which the first two were important. Eyeshadow color, lipstick color, and lipstick tone independently influenced the attractiveness and gracefulness and visibility. In the cuteness and softness, eyeshadow color and lipstick tone showed independent effect. In the interaction effect, the combination of lipstick color and lipstick tone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the attractiveness and gracefulness, visibility, and cuteness.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combination of eyeshadow color and lipstick ton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oftness.

주제어(Key Words): 아이섀도 색상(eyeshadow color), 립스틱 색상(lipstick color), 립스틱 톤(lipstick tone), 인상형성(Impression formation)

1. 서론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미에 대한 개념은 변화되고 있으며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루키즘(Lookism)의 시대라고 할 만큼 외적이미지가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대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좋은 이미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한층 자신감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오세희, 2005). 첫인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외모, 행동, 말투,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신체적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외모 중 개인간의 가장 특징적인 부위로 중요시되는 얼굴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첫 번째 신체적 특성으로 타인들과의 대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흥미의 초점이 되고, 그 형태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인상을 전달하게 된다(Delong, 1968). 그러나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인상이 형성될 때 지각자는 눈, 눈썹, 코, 입, 얼굴형과 같은 형태적 특성뿐만 아니라 눈동자색, 피부색, 헤어색과 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에 따라 각각 다른 인상으로 지각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얼굴에 행해지는 메이크업은 아름다움과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얼굴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메이크업은 얼굴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눈과 입술화장은 매력적인 인상을 만드는 중심이 되기도 한다(大坊郁夫, 1996).

토틸 코디네이션에 있어서 메이크업 색상은 외모를 변화시키고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의복의 색상과 조화되었을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이미지로 연출될 수 있으므로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색상의 조화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로 화장을 할 때와 하지 않는 경우에 외모의 매력정도를 평가하거나(Cash, Dawson, Davis, Bowen & Galumbeck, 1989; Cox & Glick, 1986; Graham & Jouhar, 1981), 화장품 사용과 직업평가에 관한 연구(Cox & Glick, 1986; Miller & Cox, 1982; Waters, 1985)들이 있었으며 메이크업과 인상형성과 관련된 국내연구(송미영, 박옥련, 이영주, 2005; 윤소영, 2001; 이연희, 2001)에서는 메이크업에 따른 인상차원을 연구하고 메이크업으로 인해 이미지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 메이크업에 있어서 아이새도와 립스틱 색상 차이는 다소 규명되었으나 립스틱의 톤이 메이크업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이새도와 립스틱색상 그리고 립스틱 톤을 중심으로 조합된 메이크업 자극물을 통해 얼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메이크업의 개념

Make-up의 사전적 의미는 '완성시키다, 보완하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미화의 목적으로 얼굴에 화장하는 것을 뜻하며 영어의 메이크업(Make-up), 토일렛(toilet), 드레싱(dressing) 또는 프랑스어의 마꾸야주(maquillage)등에 해당되는 것으로(이윤선, 2003) 얼굴에 색상을 부여하는 행위에 대한 의미가 강하다. 17세기 초 영국의 시인 리처드 크래쇼라는 사람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이며, 그 기본적인 뜻은 화장품을 사용해서 여성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보다 먼저 16세기 영국의 문호 Shakespeare의 희곡에서는 페인팅(painting)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는 짙은 화장을 가리키는 말로, 16-17세기를 통하여 연백을 원료로 만든 분을 페인트(Paint)라 불렀고 후에 백납분에 색상과 향료를 섞어 다채로운 안료로 얼굴에 칠하는 것을 페인팅(painting)이라고 하였다(春山行夫, 1976).

메이크업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리스어 코스메티코스(cosmeticos)로 잘 정리한다, 잘 감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코스메티코스는 무질서, 혼돈의 의미인 카오스(chaos)의 반대개념으로 코스모스(cosmos)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의미는 '질서있는 체계', '조화'를 뜻하는 것이다(春山行夫, 1976).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외모가 형태라면 거기에 조화로운 색채를 배색하여 완성되는 것이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다(이선주, 2000). 인간신체의 일부분에 색상을 부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외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내면의 아름다워지고 싶은 미적욕구를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메이크업이란 본래의 얼굴에 자신이 갖는 내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을 조화롭게 표출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김효정, 2000).

현대사회에서의 메이크업은 패션의 일부분으로서 의상, 헤어스타일과 함께 하나의 토틸 코디네이션 개념으로 정착되고 있다. 따라서 의상 및 헤어스타일 등과 어울리게 조화시키면 전체적으로 잘 조화된 하나의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메이크업을 토틸 코디네이션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인 하나의 미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메이크업과 인상형성

상대방을 처음 접할 때 얻게 되는 정보들은 다양하지만 인상형성 시 가장 두드러진 단서는 외모일 것이다. 외모 중 얼굴에 행해지는 메이크업은 다양한 자기연출이 가능하므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메이크업과 관련된 인상연구 중 메이크업을 한 경우와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경우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에서 Graham과 Jouhar(1981)는 보통수준의 외모를 가진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은 경우와 전문적인 화장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각되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 화장을 한 외모가 더 매력적이고, 더 여성적이며, 더 섹시하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宇山(优男, 鈴木(ゆかり), 互(蕙子)(1990)는 맨얼굴과 비교해서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의 기분상태를 20세부터 50세까지의 여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적극성의 상승, 긴장해소, 기분의 증대, 개인의 양양, 안심 인자로 구성되었고, 적극성의 상승인자는 20대에 특히 현저하며 긴장해소 인자는 50대에 특히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 실제로 20대의 여성에게 화장을 시킨 경우 화장 전에 비해서 화장 후에는 기분의 각성, 상태불안의 감소, 자신감의 증대를 볼 수 있었다. Cox와 Glick(1986)은 여성이 화장을 했을 경우와 화장을 지운 경우를 구분하여 외모의 매력도와 호감 정도를 평가한 결과 대체로 화장을 한 경우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메이크업과 매력적인 외모와의 관련연구에서 Cash외 4인(1989)은 화장과 관련된 미적인 자기관리에 있어서, 화장을 했을 경우에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여기면서 더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도 가진다고 하였고 특히, 화장은 여성들에게 더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을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하여 화장은 사회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아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iller와 Cox(1982)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매력을 증가시키는 화장품 사용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자의식이 높은 여성들이 사회적 자의식이 낮은 여성들보다 좀 더 매력적이고 좀 더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ters(1985)는 외모의 변화가 급료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머리의 색과 모양, 얼굴 색채화장 등으로 외모를 바꾼 자극물 평가에 대한 결과 외모는 모든 직업의 고용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단계가 낮을수록 외모가 급료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직 응모자들 중 전문가로서의 외모가 부족할 경우 채용은 되지만, 외모가 좋은 사람에 비해 승진이 늦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외모가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岩男(壽美子, 松井(豊, 菅原(健介)(1985)에 의하면 메이크업 화장을 자주하는 사람은 외향적이며, 기초 화장에 중심을 둔 사람은 내향적이며, 내향적인 사람에게 메이크업 화장을 행하면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것은 메이크업을 하는 주된 동기가 기본적으로 대인적 관여도를 높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메이크업과 관련된 국내연구 중 얼굴이미지와 관련된 형

태지가 연구로 송미영, 박옥련과 이영주(2005)는 얼굴의 형태적 특성을 근거로 메이크업으로 이미지가 변화될 수 있음을 밝혔고, 하선옥, 조고미와 김춘심(2005)의 연구에서는 눈썹 메이크업에 표현된 선의 착시효과를 통해 얼굴인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나해윤, 조고미와 이수희(2005)는 개인 색채진단에 따른 모발과 메이크업 색상의 변화연구에서 개인의 고유색상과 대조 색상군으로 조건을 부여할 경우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메이크업 색상과 관련된 연구로 윤소영(2001)은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인상요인을 호의성, 세련성, 품위성, 개성 요인으로 4개의 차원으로 도출하였으며, 메이크업이 진할수록 매력성은 떨어지지만 여성다움의 인식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연희(2001)의 색채화장 이미지에 대한 차원은 매력성, 지성, 온화함, 독특성, 성숙성 요인으로 5개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입술화장에 대한 이미지 지각에서 여자는 주황색을 가장 지성적이고 온화하며 성숙하지 않게 보이는 입술색으로 평가하였고 빨강색을 가장 독특하다고 지각하였다.

이상에서 메이크업은 인상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눈화장과 입술화장의 색상은 얼굴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단서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 시 아이새도나 립스틱의 색상뿐만 아니라 립스틱 톤의 변화에 따라라도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이새도 및 립스틱 색상과 립스틱 톤 조합에 따른 메이크업의 인상 차원을 밝힌다.

연구문제 2. 아이새도 및 립스틱 색상과 립스틱 톤이 메이크업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2. 측정도구

1) 자극물 선정 및 제작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메이크업을 한 20대 여성의 얼굴사진으로 하였다. 자극물 모델의 얼굴형 선정을 위해 J대학교 피부미용과 학생 58명의 얼굴을 직접 측정한 결과의 평균치와 '얼굴, 한국인의 낮'(조용진, 1999)에서 제시하는 한국인의 평균 얼굴을 참고로 평가집단(의류학 전공 교수 및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한 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모델을 선정하였다.

〈표 1〉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립스틱색상과 톤

색상 \ 톤	비비드 (vivid)	라이트 (light)	덜 (dull)	다크 (dark)
빨강(red)	5R4/14	5R8/6	5R5/6	5R2/6
자주(purple)	5RP4/12	5RP8/6	5RP4/6	5RP2/6
주황(orange)	5YR6/14	5YR8/4	5YR5/4	5YR2/4

〈표 2〉 자극물 조작내용

색상	아이새도		갈색(W)	파랑(B)	보라(V)
	립스틱톤				
빨강(R)	V	WRV	BRV	VRV	
	L	WRL	BRL	VRL	
	D	WRD	BRD	VRD	
	K	WRK	BRK	VRK	
자주(P)	V	WPV	BPV	VPV	
	L	WPL	BPL	VPL	
	D	WPD	BPD	VPD	
	K	WPK	BPK	VPK	
주황(O)	V	WOV	BOV	VOV	
	L	WOL	BOL	VOL	
	D	WOD	BOD	VOD	
	K	WOK	BOK	VOK	

본 연구의 자극물 제작 시 메이크업의 아이새도 색상은 색채가 갖는 속성 중 온도감을 기준으로 한 한난색과 중성색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신향선, 2002)를 참고로 한색 중 가장 선호하는 색으로 파랑계열, 난색으로는 브라운계열, 중성색으로는 보라계열을 사용하였다. 입술화장은 선행연구(김희선, 2002; 한보현, 2003)들을 참고로 립스틱 색상 중 가장 기본색상인 빨강을 기준으로 색상환에서 좌우에 위치하고 있는 주황, 자주 3가지 색상을 선정하여 한국표준색표집(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에 근거하여 채도는 중간으로 고정하고 명도를 변화시켜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톤이 되도록 입술화장 색상을 선정하였다. 입술화장에 사용한 색상과 톤은 〈표 1〉과 같다.

피부색은 선정된 모델의 피부색과 한국인 표준 피부색(최영훈, 1990)을 참고로 하여 파운데이션과 파우더의 색상을 선정하였고 눈썹은 회갈색으로, 아이라인은 검정색으로 하였다. 자극물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헤어스타일은 뒤로 묶은 형으로, 의복스타일은 신축성이 있는 흰색 면소재의 앞목점과 옆목점을 기준으로 한 기본 라운드 네크 라인 상의로 하였으며 배경색은 흰색으로 통제하였다.

자극물 제작을 위해 기초화장과 피부화장을 한 후 선정된 아이새도 색상으로 먼저 눈화장을 하고 입술색과 톤을 변화시켜가면서 화장을 시켜 각각 Digital Camera Canon Power Shot-G2로 촬영하였다. 다시 아이새도 색상별로 눈

화장과 입술화장을 바꿔가면서 화장한 후 촬영하여 Photoshop 7.0 program에서 scanning하여 이미지를 입력시켰다. 다음으로 한국표준색표집(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의 색상에 준하여 수정한 후 메이크업 한 얼굴사진을 네크 라인에서 2cm 내려오는 길이(10×14)로 하여 Epson R210에서 프린트하였다. 최종 자극물은 눈화장 색상 3가지와 입술화장 색상 3가지, 입술화장톤 4가지를 조합하여 만든 총 36개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조작내용은 〈표 2〉와 같다.

2) 실험설계

본 연구는 독립변인인 아이새도 색상 3가지(갈색, 파랑, 보라), 립스틱 색상 3가지(빨강, 자주, 주황), 립스틱 톤 4가지(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3원 요인설계 및 피험자 간 (between subject)설계로 이루어졌다. 세 독립변인에 의해 조합된 총 36개의 자극물을 18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각 실험조합별 피험자 수는 12명씩 무선배치 되었다.

3) 의미미분척도

메이크업한 인상을 파악하기 위한 의미미분척도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김복숙, 1999; 윤소영, 2001; 이연희, 2001; 정해선, 강경자, 2004)들에서 사용된 형용사 외에 의류학전공 3, 4학년으로 구성된 40명의 학생들에게 자극물 사진을 보여주고 자유기술식으로 표기하게 한 후 메이크업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형용사를 추가하여 총 42쌍의 형용사쌍이 수집되었다. 그러나 인상평가 어휘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평가집단(의류학전공 교수 및 대학원생)에게 검토하게 한 후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형용사쌍을 제외하고 36개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으나 요인분석결과 요인부하치가 낮은 문항과 여러 요인에 걸쳐 있는 문항을 제외한 28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었다. 메이크업 된 자극물의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하여 좌측극단의 긍정적 형용사에 7점을, 우측극단의 부정적인 형용사에 1점을 주어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피험자는 진주시내 여대생 21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류학과, 피부미용과 등 관련 전공자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2005년 9월~10월 사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에 따른 인상형성의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이 인상차원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하였으며 보조분석으로 다중분류분석(MCA: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메이크업 색상에 따른 인상차원의 요인 분석

아이새도와 립스틱 색상에 변화를 주어 제작한 총 36개의 자극물에 대한 인상차원을 밝히기 위해 28쌍의 형용사쌍으로 평가한 자료를 요인분석 한 결과 아이겐값 1.0 이상인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 1은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9.3%로 4개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보기좋은-보기싫은, 아름다운-추한, 매력있는-매력없는 등의 12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매력·품위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윤소영(2001)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요인 및 이연

희(2001)의 색채화장에 따른 이미지 차원에서는 매력성 요인과 품위성 요인이 분리 도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매력성과 품위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묶여 나타났다.

요인 2는 강한-약한, 강렬한-은은한, 요염한-정순한 등의 8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현시성'이라 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9.8%로 나타났다. 현시성 요인의 구성인자는 이연희(2001)의 독특성 요인과 헤어스타일 길이와 모자유형을 단서로 연구한 정해선, 강경자(2004)의 인상차원 중 주의집중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3은 명량한-명량하지 않은, 발랄한-점잖은, 귀여운-성숙한 등의 6개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있으며, 귀염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귀염성 요인의 구성인자는 김복숙(1999)의 성숙, 현시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2.6%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이성적인-감성적인, 딱딱한-부드러운의 2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부드러움 요인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에 대해 5.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정현주, 한유정(2003)의 부드러운 이미지, 이연희(2001)의 온화함 요인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 메이크업 색상에 따른 인상차원

형용사쌍	요인1 매력·품위성	요인2 현시성	요인3 귀염성	요인4 부드러움	공통성 (h ²)
보기좋은-보기싫은	.884	-.151	.110	.083	.823
아름다운-추한	.858	-.054	.111	-.030	.751
매력있는-매력없는	.821	.061	.142	-.094	.706
세련된-촌스러운	.801	-.037	.137	.160	.688
멋있는-멋없는	.800	.027	-.011	-.086	.648
자연스러운-어색한	.789	-.320	.041	.138	.745
분위기있는-분위기없는	.782	-.109	-.099	-.109	.645
좋아하는-싫어하는	.752	-.216	.135	-.112	.643
우아한-우아하지않은	.749	-.276	-.045	-.032	.640
지적인-지적이지않은	.742	-.269	-.214	.182	.702
안정된-불안정한	.719	-.349	-.024	.169	.667
단정한-단정하지않은	.670	-.468	-.052	.158	.697
강한-약한	-.110	.787	.042	.334	.745
강렬한-은은한	-.214	.782	.058	.242	.720
요염한-정순한	.271	.757	.091	.039	.657
대담한-소심한	-.246	.735	.174	.029	.632
화려한-수수한	-.219	.733	.362	.011	.717
눈에 띄는-눈에 띄지않은	-.274	.730	.200	.116	.662
색시한-색시하지않은	.308	.688	.009	-.053	.572
개성있는-개성없는	-.221	.607	.229	-.125	.486
명량한-명량하지않은	.126	.215	.794	.150	.715
밝은-어두운	.124	.021	.754	-.308	.679
발랄한-점잖은	-.219	.348	.730	-.074	.707
화사한-치칙한	.263	.175	.671	-.214	.595
활동적인-비활동적인	.021	.344	.661	.281	.635
귀여운-성숙한	-.038	-.361	.660	-.119	.581
이성적인-감성적인	.352	.114	-.131	.714	.664
딱딱한-부드러운	.343	-.379	.234	.501	.566
고유치	8.198	5.546	3.537	1.408	18.689
전체 변량의 %	29.280	19.808	12.634	5.028	66.750
공통 변량의 %	43.865	29.675	18.926	7.534	100.00

회귀모형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요인점수들의 결과 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매력·품위성 요인에서는 보기 좋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멋있고 분위기 있고 우아하고 지적이며 단정한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하며, 현시성 요인에서는 강하고 강렬하고 대담하고 화려하며 눈에 띄고 요염하고 색시하고 개성있는 것으로, 귀염성 요인에서는 명량하고 밝고 발랄하고 화사하고 활동적인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하며, 부드러움 요인에서는 점수가 낮을수록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출된 4개의 인상 요인이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6.8%로 나타났고, 이 중 매력·품위성과 현시성 요인이 74%를 차지하여 두 요인이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 조합에 따라 메이크업한 인상에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도출된 이미지 차원별 용어의 신뢰도 계수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 28개의 형용사 쌍에 대해 $\alpha = .79$ 로 용어들은 일관성 있게 평가되었고 도출된 인상요인들은 매력·품위성, 현시성, 귀염성, 부드러움 요인의 4개 차원으로 신뢰도 계수는 각각 .91, .91, .81, .62로 나타났다.

2. 메이크업 색상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에 따른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3원 변량분석을 하였으며 보조분석으로 MCA(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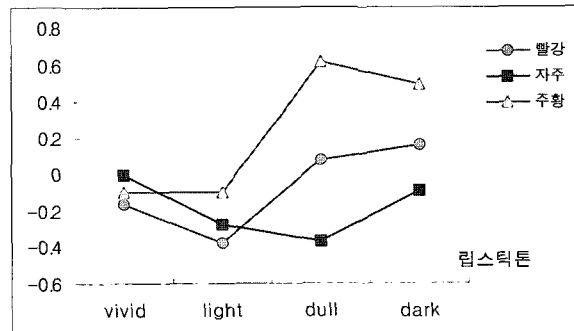
〈표 4〉 눈화장색, 입술화장색, 입술화장톤에 따른 이미지 요인별 변량분석

		매력·품위성		현시성		귀염성		부드러움	
		평균 제곱합	F값	평균 제곱합	F값	평균 제곱합	F값	평균 제곱합	F값
주 효과	아이새도(A)	21.078	25.787***	14.873	28.889***	10.226	13.679***	8.474	9.993***
	립스틱색상(B)	5.638	6.897**	24.319	47.236***	1.178	1.576	2.325	2.742
	립스틱톤(C)	4.214	5.155***	24.456	47.504***	20.865	27.909***	9.091	10.720***
2원 상호작용효과	A×B	1.004	1.228	1.065	2.069	.219	.293	2.070	2.441*
	A×C	.874	1.069	1.587	3.083**	.516	.691	1.686	1.989
	B×C	1.958	2.395*	1.094	2.124*	2.698	3.609**	.647	.763
3원 상호작용효과	A×B×C	1.141	1.396	.595	1.155	1.535	2.054*	2.007	2.367**
MCA		편 차	eta	편 차	eta	편 차	eta	편 차	eta
아이새도	갈색	.42		-.37		-.32		.27	
	파랑	-.01		.31		.08		-.24	
	보라	-.40	.33	.05	.29	.23	.23	-.02	.21
립스틱색상	빨강	-.07		.11		.09		.12	
	자주	-.17		.37		.03		.01	
	주황	.24	.17	-.48	.37	-.11	.08	-.13	.10
립스틱톤	vivid	-.07		.33		.52		-.01	
	light	-.24		-.73		.22		-.39	
	dull	.11		.03		-.26		.08	
	dark	.20	.17	.37	.46	-.49	.40	.32	.26
Multiple R ²		.172		.424		.222		.125	
Multiple R		.414		.651		.471		.354	

변량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은 얼굴인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서들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상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효과를 보면 단서가 아이새도 색상과 립스틱 톤은 4가지 요인 모두에서, 단서가 립스틱 색상인 경우는 매력·품위성과 현시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이새도 색상과 립스틱 톤은 모든 인상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중요한 단서임을 알 수 있다.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1〉~〈그림 5〉에 나타내었다.

(1) 매력·품위성 차원

매력·품위성 차원을 〈표 4〉에서 보면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의 3가지 단서 모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아이새도 색상이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보면 파랑이나 보라보다 갈색 아이새도 일 때, 립스틱 색상은 주황이고 립스틱 톤은 덜이나 다크 톤 일 경우 매력·품위성에서 더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립스틱 색상과 립스틱 톤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품위성에 미치는 립스틱 색상과 립스틱 톤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1〉에서 살펴보면 립스틱 색상이 빨강일 경우 립스틱 톤이 어둡고 탁한 톤인 덜과 다크 톤에서 보기좋고 세련되고 매력적이고 자연스럽고



〈그림 1〉 매력·품위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립스틱 색상과 립스틱 톤간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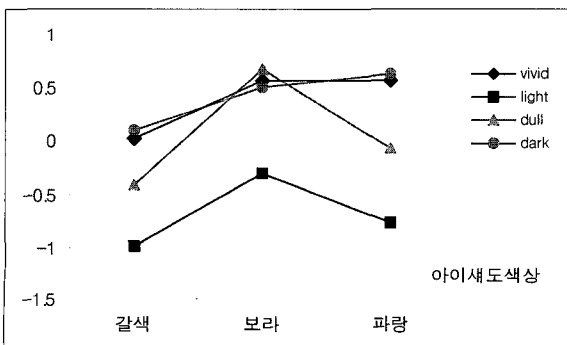
지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자주색 립스틱은 립스틱 톤 4가지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톤 변화에 상관없이 모두 매력적이지 않고 보기싫고 촌스럽고 우아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자주색 립스틱은 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립스틱이 주황색인 경우는 빨강 립스틱과 마찬가지로 톤이 비비드, 라이트일 때는 부정적으로, 덜, 다크 톤일 때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덜, 다크 톤의 주황색 립스틱은 가장 매력적이고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비비드나 라이트 톤에서는 립스틱 색상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어둡고 탁한 덜 톤과 다크 톤에서는 동일 톤이라도 립스틱의 색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립스틱의 색상에 따라 매력·품위성의 이미지 정도가 다르게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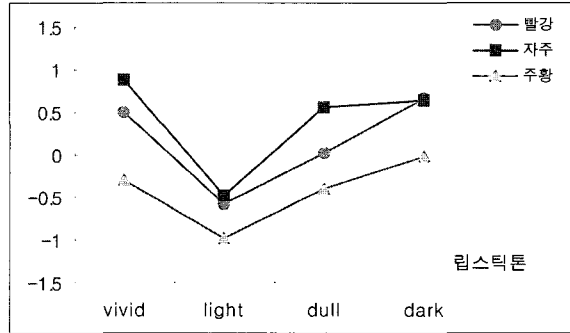
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립스틱의 색상은 립스틱 톤과 함께 인상형성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매력품위성 차원에서는 립스틱 색상뿐만 아니라 립스틱 톤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2) 현시성 차원

현시성 차원을 <표 4>에서 보면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의 3가지 단서 모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립스틱 색상과 립스틱 톤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보면 아이새도 색상이 파랑일 때 가장 대담하고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갈색 아이새도일 경우 가장 은은하고 수수하고 색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립스틱 색상은 자주색일 때 강하고 대담하고 요염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으로 주황색일 때 은은하고 수수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립스틱 톤에서는 선명한 색인 비비드 톤과 어둡고 짙은 색인 다크 톤일 경우 강하고 대담하고 화려하고 요염하고 눈에 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하고 밝은 톤인 라이트 톤에서는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나 약하고 은은하고 수수하고 개성없고 색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톤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이새도와 립스틱 색상, 립스틱 색상과 립스틱 톤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새도 색상과 립스틱 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2>에서 살펴보면 아이새도 색상이 갈색일 경우 립스틱의 톤이 다크, 비비드 톤일 때는 긍정적으로, 델, 라이트 톤 특히 라이트 톤일 때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이새도가 보라일 경우는 립스틱 톤이 델, 비비드, 다크 톤 순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라이트 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파랑 아이새도의 경우는 립스틱 톤이 다크와 비비드 톤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대담하고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립스틱 톤이 라이트 톤일 경우는 아이새도의 색상에 관계없이 은은하고 수수하고 눈에 띄



<그림 2> 현시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새도 색상과 립스틱 톤간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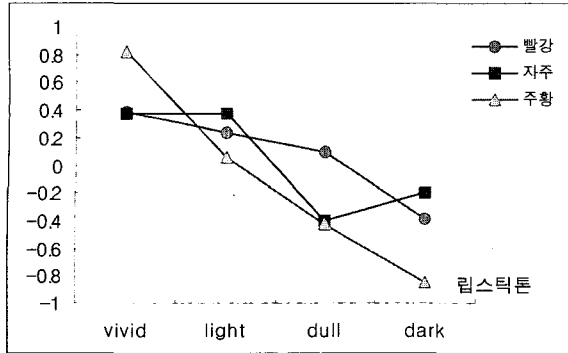
<그림 3> 현시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립스틱 색상과 립스틱 톤간의 상호작용효과

지 않고 색시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아이새도 색상이 보라일 때 보다 갈색이나 파랑일 때 이러한 인상은 강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립스틱 톤이 비비드와 다크 톤일 경우 아이새도 색상에 관계없이 강렬하고 화려하며 대담하고 색시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현시성 인상차원에는 립스틱의 톤과 아이새도 색상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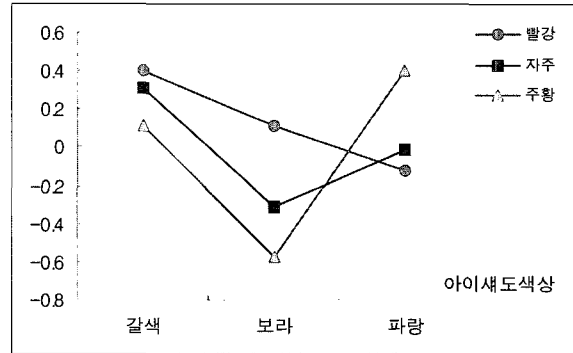
립스틱 색상과 립스틱 톤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3>에서 살펴보면 립스틱 톤에 따라 립스틱 색상간에는 현시성에 대한 인상이 대체로 일관성있는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립스틱 색상은 립스틱 톤에 따라 변화를 보였는데 3가지 색상 모두 립스틱 톤이 라이트일 톤일 경우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은은하고 수수하고 눈에 띄지 않고 색시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빨강립스틱일 경우 비비드, 다크 톤과, 자주 립스틱일 경우 비비드, 델, 다크 톤에서 높게 나타나 강렬하고 대담하고 요염하고 화려하며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 지각하여 독특성 요인에서 빨강 립스틱일 경우 가장 높다고 밝힌 이연희(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주황색 립스틱일 경우는 톤에 관계없이 모두 낮게 평가하여 톤 변화에 상관없이 모두 은은하고 수수하고 색시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특히 립스틱 톤이 라이트일 때 이러한 인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시성 인상차원에는 립스틱의 색상보다 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귀염성 차원

귀염성 차원을 <표 4>에서 보면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톤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립스틱 톤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보면 아이새도 색상이 보라일 때 가장 명랑하고 밝고 발랄하고 화사하고 활동적이고 귀여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갈색아이새도일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명랑하지 않고 점잖고 비활동적이며 성숙해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립스틱 톤은 비비드, 라이



〈그림 4〉 귀염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립스틱 톤과 립스틱 색상간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5〉 부드러움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새도 색상과 립스틱 색상간의 상호작용효과

트 톤일 때 긍정적으로 나타나 명랑하고 화사하고 귀여워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덜 톤과 다크 톤일 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립스틱 색상과 립스틱 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4〉에서 살펴보면 3가지 색상 모두 대체로 톤이 어둡고 탁한 톤 일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나 명랑하지 않고 어둡고 점잖고 성숙해 보이는 것으로, 비비드와 라이트 톤은 3가지 색상 모두 귀염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 밝고 화사하고 활동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립스틱 색상이 빨강이나 자주인 경우는 립스틱의 톤이 비비드 톤이거나 라이트 톤일 때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황의 경우는 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비비드 톤일 때 가장 밝고 명랑하고 발랄한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빨강이나 자주색 립스틱과는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주황색 립스틱은 톤 변화에 따라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4) 부드러움 차원

부드러움 차원을 〈표 4〉에서 보면 립스틱 색상을 제외한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톤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아이새도 색상은 갈색, 립스틱 색상은 빨강, 톤은 덜, 다크 톤일 경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아이새도 색상과 립스틱 색상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에서 살펴보면 갈색 아이새도를 할 때는 립스틱 색상에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특히, 립스틱색이 빨강일 때 가장 딱딱하고 이성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빨강색 립스틱을 파랑 아이새도와 코디할 때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부드러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보라 아이새도와 빨강색 립스틱, 파랑 아이새도와 주황색 립스틱을 코디할 때 이성적이고 딱딱한 이미지로 평가하였고, 보라 아이새도와 자주나 주황색 립스틱과의 코디는 매우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부드러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파랑 아이새도에 주황색 립스틱을 바를 때는

매우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립스틱 색이 동일한 주황이지만 아이새도에 따라 상반된 이미지 즉, 딱딱하고 이성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파랑 아이새도와 빨강, 자주 립스틱과의 코디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부드럽고 감성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 색상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용된 단서들, 즉 아이새도 색상(갈색, 보라, 파랑), 립스틱 색상(빨강, 자주, 주황), 립스틱 톤(vivid, light, dull, dark)에 따라 메이크업된 인상이 몇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밝히고자 28개 형용사쌍은 의미미분척도를 요인분석하여 인상차원을 밝히고, 이들 단서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작용 효과를 고찰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에 따른 메이크업된 인상차원을 요인분석한 결과는 매력·품위성, 현시성, 귀염성, 부드러움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4개 차원 중 매력·품위성, 현시성 요인이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은 메이크업된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은 인상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매력·품위성 차원의 인상에는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의 3가지 단서 모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아이새도 색상은 가장 두드러진 단서로 나타났다. 립스틱 색상과 립스틱 톤은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황색 립스틱을 어둡고 탁한 톤인 덜이나 다크 톤으로 할 경우 가장 보기 좋고 세련되고 매력적이고 자연스럽게 지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현시성 차원의 인상에서는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의 3가지 단서 모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립스

틱 색상과 톤은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였다. 아이새도 색상과 립스틱 톤, 립스틱 색상과 립스틱 톤은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갈색, 보라, 파랑 3가지 아이새도 색상 모두 립스틱 톤이 라이트 톤일 경우는 현시성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지각되고, 대체로 립스틱 톤이 비비드와 다크 톤일 경우는 강렬하고 화려하며 대담하고 세시한 것으로 평가하여 립스틱의 색상보다 립스틱 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귀염성 차원의 인상형성에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톤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중에서도 립스틱 톤은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였다. 립스틱 색상은 립스틱 톤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고 아이새도는 립스틱 색상과 톤의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비드와 라이트 톤은 립스틱 색상에 상관없이 모두 밝고 화사하고 활동적인 것으로 평가하여 립스틱 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드러움 차원의 인상에는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톤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립스틱 색상은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아이새도와 립스틱 톤과의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립스틱 색상 모두 갈색 아이 새도와 코디할 때 색상에 관계없이 이성적이고 딱딱한 이미지로 평가되어 립스틱 색상보다 아이새도 색상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에 따른 메이크업 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 이들 단서들의 조합에 따라 인상차원이 다르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은 메이크업된 얼굴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된 정보로 또는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였으며 립스틱 색상보다 아이새도 색상과 립스틱 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된 정보로 작용되지 않았던 단서들도 지각단계에서 서로 통합되어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상형성시 주변특질과 중심특질이 있음을 의미하고 각각의 정보들이 조직화되어 전반적으로 형성된 인상은 각 정보를 모두 합한 것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다는 형태적 접근이론을 지지해준다. 따라서 독립변인의 영향과 이들의 조합상태에 따라 그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므로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은 메이크업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보임은 물론이고 아이새도 색상,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의 조합에 따른 메이크업 배색방법을 통해 다양한 인상창출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토탈 코디네이션에서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메이크업의 색상과 톤 조합에 따른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메이크업 색상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

료는 이미지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배색방법을 제시하여 이미지 컨설팅 및 메이크업 색채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양한 아이새도 색상과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피부색과 헤어스타일을 통제된 상태에서 실험이 이루어졌으므로 아이새도 색상과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 조합에 의한 차이는 다소 규명되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후속연구로는 메이크업에 의한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규명하기 위해서 얼굴형과 피부색, 헤어스타일과 헤어색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대상을 넓게 선정하여 성별 및 연령별 비교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복숙(1999). 여성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2000). MAKE-UP. 서울: 학연사, 13.
- 김희선(2002). 색조제품의 유행색 데이터 관리를 위한 색채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2), 107-110.
- 나해운, 조고미, 이수희(2005). 개인 색채 진단에 따른 모발과 메이크업 색상의 변화. 패션비즈니스학회지, 9(2), 20-27.
- 송미영, 박옥련, 이영주(2005). 얼굴의 형태적 특성과 메이크업에 의한 얼굴 이미지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1-11.
- 신향선(2002). 퍼스널 컬러시스템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와 색채진단 변인에 관한 연구- 메이크업, 헤어, 의상 색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희(2005). 오세희의 Style Make-up. 서울: 성안당, 14.
- 윤소영(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22.
- 이선주(2000).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채의 효과와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희(2001). 색채화장이 얼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유행 예측색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선(2003).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의한 패션이미지의 변화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해선, 강경자(2004). 헤어스타일 · 길이와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28(3/4), 460-471.
- 정현주, 한유정(2003). 웨딩헤어 관련 코디네이션의 이미지

- 지각(1)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7(7), 735-745.
- 조용진(1999). *얼굴 한국인의 낮*. 서울: 사계절출판사.
- 최영훈(1990). *색채학개론*. 서울: 미진사, 104-105.
- 하선옥, 조고미, 김춘심(2005). 눈썹 메이크업 표현에 응용되는 선의 착시 효과. *패션비즈니스학회지*, 9(2), 28-39.
- 한보현(2003). 성인여성의 화장색에 관한 분석-메이크업 제품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BS한국색채연구소(1991). *한국표준색표집*. KBS문화사업단.
- 大坊郁夫 (1996). 對人魅力學からえたメイクアシブへの提言. *Fragrance Journal*, 10, 11-16.
- 岩男壽美子, 松井豊, 菅原健介(1985). 化粧の心理的效用(IV) 化粧行動と化粧意識. *日本社會心理學會*, 第26回大會發表論文集, 102-103.
- 字山侑男, 鈴木ゆかり, 互蕙子(1990). 메이크업의心理的有用性. *日本香粧品科學會誌*, 14, 163-168.
- 春山行夫(1976). *おしやれの文化史*. 東京: 平凡社.
- Cash, T. F. (1988). The Psychology of Cosmetics: A research bibliograph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6, 455-460.
- Cash, T. F., Dawson, K., Davis, P., Bowen, M., & Galumbeck, C. (1989). Effects of cosmetics use on th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body image of American college wom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9(3), 349-355.
- Cox, C. L., & Glick, W. H. (1986). Resume Evaluations and Cosmetics use: When more is not better. *Sex Role*, 14, 51-58.
- Delong. M. R. (1968). Analysis of costume visual form.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 784-788.
- Graham. J. A., & Jouhar. A. J. (1981). The effects of cosmetics on person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3, 199-210.
- Miller, L., & Cox, C. (1982) For appearances sake: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make up u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748-751.
- Waters, J. (1985). *Cosmetics and Job Market in The Psychology of Cosmetic Treatments*. New York: Praeger Publisher, 113-124.

(2005년 12월 12일 접수, 2006년 3월 23일 채택)